

## 주요 내용

### ■ WEF A 세계 경제 전망 ■

#### □ 세계 경제 전반

- 세계 주식 시장의 불안정, 아시아 위기 재발 가능성 등 몇몇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경기 호전이 더욱 가시화되고 있어 보다 견고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

#### □ 권역별 경제 전망

- (미국 · 캐나다: 성장 가속화) 첨단 정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켜 고성장이 지속될 전망임
- (일본: 본격 회복세)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이 결실을 맺고, 기술 혁신 및 벤처 투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회복세가 예상됨
- (EU: 성장 궤도 진입) 미국 경제의 확장과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
- (아시아: 高성장 시대 재도래)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의 대부분이 정치적 안정을 이룩함에 따라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소비 증대로 6%대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됨
- (중남미 및 기타: 견고한 성장세)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과 경제 개혁의 지속이 성장 원동력으로 작용하여 높은 성장세를 시현할 것임

#### □ 시사점

- (세계 경제 호황을 이용한 수출 증대) 당분간 세계 경제의 호황으로 교역량의 증가가 기대되므로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한 수출 확대 노력이 요구됨

---

## 현안 분석

# WEFA 세계 경제 전망<sup>1)</sup>

### 세계 경제 전반: 견고한 성장세와 확대된 안정성

- (개괄) 미국 경기의 활황 지속, 일본의 경기 부진 극복, 유럽의 경기 회복세, 아시아의 두드러진 경기 상승과 더불어 중남미 경제의 회복 진입, 중동 지역 경제의 회복 등으로 인해 '보다 견고한 성장세'를 보일 것임
  - 세계 경제 성장률은 1999년 2.9%에서 2000년에는 3.9%로 높아지고 2001년 3.7%, 2002년 3.6%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(기초(Baseline) 전망)
  - (미국) 예상보다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, 경기 후퇴의 위험도는 10~15% 정도에 불과한 상황임. 또한 실업률이 임금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는 가운데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, 설비투자가 높은 생산성 증가를 견인하고 있음
  - (EU) 미국 경제의 활황 지속,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, 경기 호전 양상은 더욱 진전될 것임
  - (아시아) 제조업 부문의 고성장, 수출 증대, 소비 진작 등에 따라 활황세를 지속
  - (일본) 민간 부문의 회복이 경기 호전을 강하게 견인하는 한편 소비자와 기업의 경기 호전 기대가 크게 제고되고 금융시장 상황도 개선되고 있음
  - (중남미) 부진 국면을 탈피하여 회복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판단됨
  - (중동, 아프리카) 원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의 상승에 따라 성장세를 나타낼 것임
- (위험 요소) 세계 주식 시장의 불안정 및 아시아 경제위기 재발 가능성, 유럽의 불경기 재진입 가능성 등의 위험 인자도 내포되어 있음
  - 세계 주식 시장 붕괴 가능성의 경우 미국 내에서의 '버블' 폭발 가능성 여부 및 연방 정부의 대응 방식 등이 논의, 평가되어야 할 것임

---

1) 본 글은 WEFA의 발간 자료(2000. 5) 및 World Economic Conference(5. 15~16)에서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요약, 재구성한 것임

- 아시아 위기 재발 가능성(15% 확률, 특히 2~3년내)의 경우 재정 개혁, 기업 관리, 부채 축소, 경제 구조조정의 성공 여부에 따라 중장기 성장 견인도 좌우됨
  - 일본 경제의 경우는 금융부문 문제와 정치력 결여에 따른 회복세 이탈(20% 확률)의 가능성이 있으며, 브라질 경제의 퇴보 가능성도 35% 정도로 판단됨
  - 또한 유럽 경제가 또다시 불경기 국면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과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교역 성장의 둔화도 고려될 수 있음
- (高성장 시나리오) 몇몇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경우, 세계 경제가 高성장세를 나타낼 가능성도 25%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- 고성장 시나리오(Stronger Growth Scenario) 하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2000년에 4.4%로 크게 높아지고 2001년 4.2%, 2002년 3.9%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

#### < 세계 경제 전망 >

	1999	기초(Baseline) 전망			고성장 시나리오		
		2000	2001	2002	2000	2001	2002
세계경제성장률(%، 연간)	2.9	3.9	3.7	3.6	4.4	4.2	3.9
미국	4.2	4.6	4.0	3.8	5.3	4.6	4.1
일본	0.3	1.6	2.6	2.2	2.5	3.4	3.2
EU	2.0	3.2	2.8	2.6	3.5	3.0	2.5
중국	7.1	7.2	7.5	7.6	7.6	7.8	8.2
동남아	5.7	5.9	6.5	6.7	6.6	7.3	7.9
중남미	-0.8	3.7	4.2	4.3	4.6	4.9	5.2
동유럽	2.5	3.7	4.8	4.7	4.8	5.8	6.0
세계교역 성장률(%, 연간) (수출, 물량기준)							
4.5	8.4	6.6	6.7	8.5	8.1	8.2	
국제환율(연평균)							
엔/달러 환율(¥/\$)	113.9	110.1	108.8	107.8	110.1	108.8	107.8
달러/유로 환율(EURO/\$)	0.939	1.011	0.945	0.886	1.080	1.000	0.940
국제 단기 금리(%)							
미국(3개월 CD)	5.3	6.4	6.5	6.2	6.5	7.0	7.0

주: 중남미에서 멕시코 제외.

---

## 권역별 경제 전망

- (미국 및 캐나다: 성장 가속화) 미국 경제는 예상외의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2000년에도 고성장을 이룰 전망이며, 캐나다 경제도 보다 견고해질 것임
  - 미국 경제는 예상보다 빠른 소비와 산업 생산의 증가에 힘입어 2000년에 4.6%, 2001년에는 4.0%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
  - 특히 첨단 정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증가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
  - 캐나다도 미국 경제의 확장에 영향을 받아 소비가 확대되고 설비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3.5%의 경제 성장이 예상됨
- (일본: 본격 회복세) 개인 소비 지출 증가와 여러 가지 경제 개혁으로 2000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가 시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  - 일본에서도 시장 개혁, 규제완화, 기술 혁신, 벤처 투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
  -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금융 부문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, 상업은행과 지역은행 등이 합병하여 세계 최대 은행이 탄생하고 규제 완화로 국제 금융 기관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변화로 주목됨
  - 또 도요다, 소니 등 주요 자동차나 전자업체들이 신흥 시장 개척을 위해 신제품 개발에 열중하고, 과거의 폐쇄적 구조에 탈피하여 미국 및 유럽의 동종 업체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음
  - 따라서 일본 경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결실을 맺음에 따라 1999년보다 성장 폭이 더욱 증가하여 2000년에는 1.6%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
- (EU 성장 궤도 진입) 미국 경제의 성장과 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유로 경제도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
  - 수출 증가율의 확대, 기업 신뢰도 및 투자 증가 등으로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확대될 것임
  -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와 기술 혁신에 따른 비용 감소가 수요측 물가 인상 압력을 완화시켜 물가는 1%대에서 안정될 전망

- 
- 반면 유럽 중앙은행(ECB)의 추가 금리 인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반 금리 상승으로 유로화 가치는 더욱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
  - (아시아: 고성장 시대 재도래) 정치적 안정,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, 소비 증가 등으로 추가 성장이 가능해져 과거와 비슷한 6%대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됨
    - 특히 한국, 중국, 타이완의 경제 성장이 급속히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, 이는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임
    - 중국의 경우 올해 WTO 가입이 예상되면서 수출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00년 1/4분에만도 전년 동기 대비 27% 증가한 110억 달러에 달함
    - 한국도 대외 거래의 폭발적 증가로 7%대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고, 특히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건설, 비료 등 일부 산업의 붐도 기대됨
    - 그러나 인도네시아, 태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과 금융 개혁 부진으로 성장세 회복이 약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됨
  - (중남미 및 기타: 견고한 성장세) 중남미 국가들은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이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은 경제 개혁 지속이 성장 동인(動因)으로 작용할 전망
    - 개인 휴대 통신 산업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, 특히 인터넷 산업이 새롭게 부각됨으로써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보임

## 시사점

- (세계 경제의 성장이 기대) 당분간 세계 경제의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
  - 세계 경제의 성장세 지속은 바로 교역량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임
- (수출 확대에 역점) 세계 수요 증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출 증대 전략이 절실히 요구됨
  - 특히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는 수출선을 다변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 특성에 걸 맞은 상품 개발을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

(민주홍 연구위원 [jhnin@hri.co.kr](mailto:jhnin@hri.co.kr) ☎ 3669-4015)  
(정희식 주임연구원 [hsjaung@hri.co.kr](mailto:hsjaung@hri.co.kr) ☎ 3669-4022)